

신앙간증문 / 드리미스쿨 3기 김민석

드리미학교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도 가보고 성경책을 읽고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성경공부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고 교회 선생님과 신앙수업도 하고 공부도 했습니다. 드리미학교에 붙고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을 믿어봐야겠다라는 마인드로 학교에 왔었습니다. 처음에 신앙생활이 적응 안 되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적응이 되었습니다. 지금 나의 신앙생활을 생각해보면 신앙적으로 많은 것이 바뀐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 오기 전에는 발을 다쳐 집안에서 게임만 하고 저급한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학교에서 수업이나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항상 말조심하고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오고 3 주뒤에 내가 지금까지 사탄의 나라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고 천국에 가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4 월 27 일에 애터미 전략회의 가서 전략 회의를 참가하고 박한길 이사장님과 드리미 3 기친구들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이사장님이 우리 3 기에게 ‘너희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는 바로 네라고 답하였습니다. 이유는 드리미학교가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인재를 만드는 곳이고 나는 이 드리미학교에 입학해 신앙적인 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기도할 때 ‘구원의 손길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1 주일 동안 매일 10 시에 기도회를 했었는데 기도회를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드리미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나를 돌아보는 시간, 개인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고, 일과가 끝나면 하나님을 잘 잊는 나를 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고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회에 매일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또 기도회가 생겨 매일 기도회에 참석할 것입니다.

빛음 페스티벌때 2,3 기생들이 부르는 합창곡, ‘정결한 그릇’에 “금그릇 은그릇 아니어도 주가 쓰시기 편한 그릇되길 원하네” 라는 파트를 듣자마자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매일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함 예배 때 예수병원과 애터미가 함께 캄보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니 너무 멋있었고 배우고 싶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가 드리미학교에서 신앙심을 키우고 힘든 사람들과 불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드리미 공동체는 사회에 나가서 평생의 동역자라는 말을 기억났습니다. 다함예배때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동역을 떠올리며 내가 못하는 것과 상대방이 못하는 것을 서로 보완하고 서로 도와주는 삶을 살아 갈 것입니다.

큐티시간이나 신앙시간때 성경을 읽으니 궁금증이 많이 생깁니다. 궁금한 것들을 책 옆에 적어놨다가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나 형들,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질문하는 시간도 많이 갖고 친구들과 신앙 얘기를 많이 나누고 듣고 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신앙적으로 많이 바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드리미학교에서 하는 큐티, 신앙, 자율신앙, 빛음, 복음사경회, 주일예배, 다함예배,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게 되는 시간들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드리미학교에서의 목표는 드리미학교에서 여러가지를 도전하여 나의 달란트를 찾고 그 달란트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신앙간증문 / 드리미스쿨 3기 김세연

드리미학교에 들어오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학교 들어오기 전에도 읽어보긴 했지만 정말 읽기 싫었고 재미도 없었는데 학교에 와서 성경을 읽고 재미있다고 느낄 정도로 성경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큐티를 하면서 처음에는 나의 생각이나 느낀 점을 공유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고 꺼려졌는데 지금은 친구들과 내 생각을 공유하면서 성경을 한 층 더 알아가는 시간이 굉장히 좋게 느껴졌습니다. 또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내용을 더 알 수 있는 시간이어서 그리고 신앙수업시간에 구약을 배우고 있고 지금은 창세기 창조시대 부분은 다 배우고 족장시대 부분을 배우고 있는데 창세기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신앙수업이 유익합니다. 앞으로 배우는 신앙수업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다함 예배시간에는 다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사를 보고 가사를 묵상하며 나의 진심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뜻 깊었습니다. 복음사경회를 지금까지 총 두 번을 들었는데 첫 복음사경회 때는 처음이라 이게 뭐지 싶기도 하고 모르는 이야기들이 투성이어서 많이 졸고 그랬던 것 같은데 2 번째 복음사경회 때는 모르는 이야기들이니까 더 집중해서 들어야지라고 생각하며 졸지 않고 열심히 듣게 되었고, 복음을 알게 되고 사경회를 들으면서 재미있다고 생각할만큼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사경회를 듣고서 진화론을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했고, 창세기의 내용이 더 궁금해져서 창세기를 읽고 이해해보고 싶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에게 절대감사를 하고 순종을 하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훈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친구들의 생각을 알게 되어서 유익하고 친구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나도 성경을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아가며 그 말씀들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는 점과 힘든 일이 있거나 고민이 있을 때 기도를 하며 마음의 안정을 얻고 있다는 것이 제가 신앙적으로 성장했다는 또 다른 증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성경을 잘 모르는데 매일마다 읽고 모르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다시 생각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제 삶의 중심이 점점 하나님께로 맞춰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내가 성경을 알고 앞으로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나는 죄를 지으며 살아온 죄인인데 하나님 나라에 쓰임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등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항상 기도할 때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죄송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을 처음으로 보내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게 되었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슬펐고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큐티를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하여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에 매일 성경구절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금식을 많이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합창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의 빛음을 대표하는 노래는 정결한 그릇이고 그 노래의 가사를 묵상했을 때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과 너무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메인곡으로는 다시 복음 앞에 라는 곡을 하게 되었는데 그 노래의 가사를 보고 나도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인 하나님 나라라는 곡 가사를 묵상했을 때는 거듭나고 믿으며 하나님 나라에 쓰임이 되는 일원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드리미학교에 와서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앙간증문 / 드리미스쿨 3기 김지수

저는 드리미 학교에 와서 저는 신앙적으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드리미 학교에 보내주셔서 저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고 하나님께서 이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사실도 알고는 있었지만 가볍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고 알게 된 것들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부정하며 의심을 품어왔는데 학교에서 하는 신앙수업, 이음예배, 다함예배, 복음사경회, 제자훈련, 주일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도 부족한 시간에 성경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부정했다는 사실이 정말 부끄러워 졌습니다. 드리미학교에 오기전 ‘너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라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확신이 없었는데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아침에 하는 이음예배를 통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해 주신 일들을 더 자세히 알고, 믿고 나서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드리미 학교에 와서 들은 복음사경회를 통해서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김용의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예수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것도 크다고 말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크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 뿐인 아들은 십자가에 못박으셨는데 하나님께 내가 나의 진실된 마음과 어떤 정성을 다 해도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보다는 크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마음에 새기게 되면서 제 자신이 죄인인 사실을 더 잘 알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진실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겠다고 다짐하며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1 장 24 절에서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떠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아닌 부모님에게 먼저 말하기 바빴던 철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할 때에도 나의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이야기 하는 기도가 아닌 영혼 없이 형식적인 기도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진심을 담은 회개기도를 하고 드리미 학교에 와서부터 습관이 된 매일 밤 자기전에 혼자서 조용히 하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더 잘 알게 되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 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물질적인 기도 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아직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것 같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다함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선태 원장님께서 학교에 오셔서 다함예배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용기가 있어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전의 나는 학교에서 성경읽는 것은 절대 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것을 숨겨왔던 것 같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전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함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예전의 나는 왜 그랬을까 생각하며 회개 기도를 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드리미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세상에 사람을 만드신 목적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며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야 겠습니다.

신앙간증문 / 드리미스쿨 3기 김하늘

드리미학교 입학 기준을 '김하늘'이라는 사람의 삶이 바뀌었다. 나는 3살 때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다. 유치부에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초등부로 올라온 후로는 아침잠에 못 이겨 교회를 소홀히 다니기 시작했다. 결국 중학교 때는 오로지 학업에만 관심이 있었고 교회는 거의 다니지 않았다. 공부만 하던 내게 아빠는 드리미학교를 내게 추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 나에게 기적을 일으키셨다.

드리미학교 입학 전 예비 신입생 과제를 하며 하나님의 기적이 본격적으로 나에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2020년 11월 과제로 복음사경회 총 4강을 듣게 되었다. 첫 강의는 강명구 교장선생님의 신묘막측한 인생이라는 주제의 강의였고 세밀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우리의 신체와 우주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예수영화를 온 가족이 시청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함께 못 박히시는 장면에서 많이 울었다. 자신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신 분이 '라마 사 박다니' 라며 울부짖으신 장면이 머릿속에 강하게 남았다. 이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

드리미학교에 입학하고 빛음을 통해 나의 연약한 신앙심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 복음 사경회, 다함 예배, 제자 훈련, 신앙 수업, 신앙 도서 필독, 주일 예배 등 다양한 드리미의 신앙 커리큘럼을 통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되고 더욱 가까워짐을 느낄 수 있었다. 빛음은 시동만 걸린 '신앙'이라는 자동차에 엔진을 밟아준 역할을 하였다.

빛음 과정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수업은 차원의 의미 및 적용이다. 이 배움을 통해서 5차원적인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5차원적인 삶은 하나님 나라, 영의 세계를 사는 것이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는 삶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는 4차원적인 삶, 즉 100년을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며 살아왔었는데 나는 영원을 살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다. 돈, 명예, 부, 인기는 내가 추구해야 할 것들이 아니며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하심과 전능하심을 느끼게 되었고 인간은 한없이 무능하며 연약함을 느꼈다.

복음 사경회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십자가의 의미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 순종'과 '절대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죄 덩어리인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뜻에 순종하시고 자신을 비우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 덩어리인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신의 권위, 자존심, 품위를 버리시고 죽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게 되었고 나의 죄에 대해 회개하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교활하고 얼마나 자기 숭배를 하며 살아왔는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 나의 이익을 위해 욕심을 부리고 이웃들을 섬기지 못하고 경쟁에서 이기려 하고 하나님께 등지며 사탄의 길을 걸어갔던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심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끝까지 멸망할 수밖에 없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되었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구원을 받고 끝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나만 이 세상의 하나뿐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닌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고 선교를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시고 붙들어주시어 드리미학교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린다. 드리미학교에서 소중한 9 명의 3 기생 친구들, 드리미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우정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드리미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동역자들로서 천국에 갈 때까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손꼽아 기다리며 크리스천 리더로서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 것이다.

신앙간증문 / 드리미스쿨 3기 박예담

저는 학교에 들어오기 전, 면접을 볼 때까지만 하더라도 ‘낮은 곳으로, 좁은 길로 갈 각오가 있냐.’는 질문에 말로 대답은 하였지만 속으로 마음에 확신은 없었습니다. 구원과 하나님 나라만 생각했고 부끄럽게도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됐지 뭐,’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 것들을 열심히 즐기며 살아왔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면서 학교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정말 막연하게 학교에 오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잘 인도해 주시겠지. 다 잘 풀리겠지라고 생각하며 원서를 내고 입학까지 한 인문계 고등학교 대신 드리미 학교를 선택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 풀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진짜 낮은 곳에 떨어지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이고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내게 기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에 제 심정은 걱정 반 기대 반이라기에는 기대 삼십, 걱정 칠십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짧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그 막연하고 부끄러운 기대 이상으로 응답받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선 교회에 정말 ‘출석’을 하던 제가 말씀을 듣기 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러 가게 되고 항상 결심을 해도 작심삼일, 흐지부지 넘어갔던 성경 책 읽기가 밑줄을 치며 내 생각을 적으면서 읽으니 점점 흥미가 생기고 성경 책을 읽는 조용한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읽었던 부분을 다시 읽자 늘어나는 마음과 달는 구절들. 그 말씀들을 머릿속 만이 아니라 가슴에 새겨서 밤낮으로 묵상하며 일상생활에 적용하려고 노력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스쳐 지나갔던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성경 구절의 참의미가 무엇일까 묵상하고 예수님의 비유적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 같은 절기를 처음으로 그때의 예수님을 생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항상 나와, 나에게 소중한 가까운 사람 정도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공동체가 뭔지도 몰랐던 내가 어느새 이 공동체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스스로에게 놀라서 은혜가 되기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왜 내 속에서는 자꾸 죄의 모습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나 싶은 번뇌의 시간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복음 사경회와 목사님 말씀 등을 통해 꾸준히 좋은 말씀들을 듣고 친구들과 생각도 공유하고 항상 묵상한 내용을 같이 나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저는 완전하게 빛어지지 않았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죄의 모습들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에 자책하지 않고 앞으로 또 열심히 이 학교에서 배워 나가면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선한 일을 행하여 죄를 억누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의 저는 보잘것없고 제가 무엇을 섬길 수 있을지 싶지만 다시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이 쓰시는 정결한 그릇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써주실지 기대하며 그럴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 이 학교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교회를 나가지 않거나 누군가 제게 종교가 무엇인지 물어봤을 때 기독교가 아닌 종교를 말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로마서 8:18 말씀에 나와있는 것처럼 내

죄가 정말 무겁다는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새로운 꿈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기회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또한 드리미 학교에 오기 전에 선교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내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제가 선교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제 이 변화들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무엇보다 크게 다가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제게 이런 기회를 주고 제 미래를 바꿔 놓을 드리미 학교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베풀어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올바른 길로 가게 도와주실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항상 좋은 말씀 주시는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제 인생에 동역자가 될 소중한 친구들, 선배들을 만나서 감사하고 이런 모든 기회를 주신 이사장님께도 감사하고 저를 이 학교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진심으로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삶을 살고 남을 위해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간증문 / 드리미스쿨 3기 오주희

저는 드리미 학교에 와서 제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나는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와서 QT 도 매일 하고, 성경도 읽으면서 원래 알지 못했던 성경말씀들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 알게 된 말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의 이야기입니다.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중에 나를 기억해달라” 강도의 진심이 담긴 고백을 듣고 잠시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죄를 짓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살았던 사람이 단 한 번의 고백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열심히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들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생각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고,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 동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성 금요일 기도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았습니다. 영상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창으로 찌르고, 손과 발에 못을 박는 모습을 보며 사람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반성하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보다 제가 더 잔인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셨는데 저는 그 사실을 알고도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친 사람들, 예수님을 조롱하며 채찍질 한 사람들보다 더 잔인하고 심각한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드리미 학교에 와서 복음 사경회도 2 번 들었는데 복음 사경회에서 자세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배웠고,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관점으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무능한 사람이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다’ 첫 번째 복음 사경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입니다. 저는 항상 교만하게 살아왔고,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를 해도 계속해서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복음 사경회를 듣고 제가 정말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드리미 학교에서 제 신앙을 가장 많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준 활동은 제자훈련인 것 같습니다. 제자훈련에서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면서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 집 나간 탕자처럼 살았었는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등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저는 제 삶과 마음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믿는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천국은 존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 라는 사실을 믿는 것만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나는 복음을 믿는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들을 믿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항상 나를 사랑하신다.” 제자훈련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외모가 뛰어나고, 공부를 잘하고, 돈이 많은 사람을 더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이 좋아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앞으로 드리미 학교에서 제 신앙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앙간증문 / 드리미스쿨 3기 윤주안

저는 모태신앙이고 아버지가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만 인지할 뿐이지 하나님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는 교회도 가기 싫은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이를 먹을수록 하나님을 더욱 더 알아가고 믿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드리미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드리미학교에 온 뒤로 많은 것들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절실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삶이 조금씩 조금씩 더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드리미 학교 오기 전에는 QT 나 성경을 읽는 날을 많이 빼 먹거나 하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미디어에 영향이 대략 80%로 제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드리미학교에는 미디어를 거의 완전히 단절하기 때문에 성경도 많이 읽고 QT 도 거의 빠짐없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더 집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게 되니까 저절로 성경 구절을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성경구절도 생기고 나의 마음을 울리는 성경 말씀도 생겼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소개해 보자면 요한복음 15 장 13~14 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라는 말씀을 제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드리미 학교에 와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이 말씀이 더욱 더 나에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나도 우리 드리미 학교 공동체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주안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드리미 학교에 처음 왔을 때 빛음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별로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빛음 교육을 하면 할수록 빛음 교육을 받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편리하고 유용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빛어진다라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여러 번의 빛음 교육과 다양한 주제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고 나의 마음에 와 닿는 교육은 언어 빛음 교육과 성교육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사용해왔던 저급한 말의 뜻을 제대로 알고 나니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고 그 말이 얼마나 심한 말인지 알게 되고 그 말을 쓰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거의 그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드리미학교에 오기 전에는 성교육을 하면 생물학적인 성교육만을 배웠지만 빛음 성교육 시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성 가치관에 대해서 배우고 정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성에 관해 궁금해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편하게 질문하고 선생님이 답해 주셔서 궁금증도 풀릴 수 있었습니다.

드리미학교에 와서 복음사경회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나약한 인간이고 죄의 덩어리인지 인식할 수 있고 회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김용의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나무라면 죄의 열매가 올라오면 아무리 죄의 열매를 없애도 소용이 없다. 그 나무의 뿌리에서부터 제거를 해야 죄의 열매가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과 거의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복음 사경회 기도회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는 저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드리미학교에 와서 나의 변화를 만들어낸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드리미학교에 와서 새로운 경험을 또 한 번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지금까지 고난 주간은 부모님이 금식 하시며 기도하시는 모습만 많이 봐 왔지만 드리미학교에 와서 처음으로 제대로 고난주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금식에 참여하고 하루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였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예수님에 고통을 느끼고 묵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절로 고난 주간 때는 죄를 짓지 않게 되었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사랑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리미학교에 다니며 다닐수록 성장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드리미학교에 보내신 이유가 아마 이것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저를 미래에 사용하시려는 계획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리미학교에 다니며 주님이 저에게 드리미학교에서 보여주시실 것들을 잘 보고 잘 배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고 전파하며 살기 위해서 드리미학교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신앙간증문 / 드리미스쿨 3기 지운서

저는 드리미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드리미학교에 오고 나서 신앙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주일예배에 대한 저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저에게 주일예배는 매주 일요일마다 예배하기 30 분 전에 일어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준비 없이 예배드리러 가서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거나 졸거나 둘 중 하나였는데 드리미학교에 오고 나서는 일요일마다 일찍 일어나서 멀쩡한 정신으로 주일예배에 참여하고 주일예배에서 하는 찬양도 열심히 따라 하고 목사님께서 하시는 설교 말씀도 열심히 적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교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적으려고 노력하다 보니 자동적으로 졸지 않게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일예배를 드리다 보니 주일예배가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기다려지게 되었습니다.

둘째로는 여러 신앙 활동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점입니다.

드리미학교에서 하는 여러 복음 사경회를 통해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 평소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이야기들이나 말씀 구절들이 머릿속에 들어오고 들어온 말씀들을 영성 일기 시간이나 신앙에세이를 적는 시간에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앙 활동을 통해 처음으로 고난주간에 금식을 하며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 시간 동안 저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못 박혀 죽으신 날을 모른 채 헛되이 보냈다고 생각하며 반성했고 금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조금이라도 같이 느끼고 공감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통해 내 안에 있던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배우고 이 이야기와 비슷했던 경험을 서로 나누며 친구들과 신앙적으로 같이 성장해가는 느낌을 받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앞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너희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 말씀에서 저는 하나님과 같이 다니던 제자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모두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를 버리고 남들처럼 부유하게 사는 것을 포기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저도 앞으로 나의 재산과 소유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에 김용의 선교사님이 하셨던 형제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형제 이야기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옷(죄)를 대신 입고 죽으셨으니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사역하시면서 걸어왔던 따라 걸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빛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어떠한 존재보다 중요한 존재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 거듭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앙간증문 / 드리미스쿨 3기 추교람

저는 드리미학교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그런 평범한 남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드리미학교에 들어오고 난 후 저에게 신앙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드리미학교에서는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나 몇 년간 교회에 나가지 않은 (반) 모태신앙입니다. 드리미 학교에 들어오고 나니 성경에 대해서 식어가던 저의 관심이 “신앙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과 마음이 새록새록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음 예배, 신앙 시간, 자율 신앙 시간, 다함 예배, 제자훈련, 영성 일기, 그리고 주일예배와 복음 사경회까지... 정말 다양한 활동으로 신앙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이해할 수 없었던 수많은 말씀들과 질문들은 무엇인가? 저의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수많은 질문들. 이 무수한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항상 저의 수많은 질문들을 해결하고 싶었는데 드리미학교에서 주는 이 신앙 시간들로 인해서 저에게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해주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아침에 이음 예배로 시작해서 밤에 영성 일기로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일주일에 주기마다 제자 훈련, 신앙 수업, 다함 예배 등이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신앙에 대해 생각하고, 잠들기 전에 신앙에 대해 생각하면서 모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대해 제대로 생각하지 않았던 저를 반성할 수 있었고, 항상 신앙에 대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과연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반) 모태 신앙으로써 부끄럽지만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신앙에 대해 배워가며 내가 신앙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지,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죄가 있다면 과연 그 죄는 무엇이고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이 학교에서 알아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 들어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꼭 만나라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니 “내가 이 학교에 온 이유가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내 미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신앙 또한 바라보는 내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이 학교에서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